<7강 실존과 염려>

구 연상(숙명여대)

● '거기에 있음(현존재)'의 바탕(Grund/근거)은 '나가-섬(Existenz/실존)'이다.

사람의 있음의 바탕은 무엇인가?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에 따를 때, 바탕은 언제나 '**밑을 이루는 것(실체, Substanz/밑에 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를 때, 사람의 있음의 바탕은 영혼, 신, 사유, 절대 정신 등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밑바탕 개념은 서양 철학이 바탕을 '단순 실체'에서 찾고자 하는 '방법적 경향'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물질로서의 몸 또한 다른 종류의 밑바탕인 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체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하나로 묶인 것'으로서의 사람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밑바탕인 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는 없다. 게다가 이 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할 길도 없다.

칸트는 서로 다른 것들이 복합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많은 게 겹쳐 있음(Mannigfaltigkeit/잡다, 다양)**"이라고 불렀다. 이는 사람의 감각에 주어져 느껴지는 것들은, 그것이 비록 하나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보기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나무를 본다면, 그것의 '**곧이 보임(直觀/Anschauung)**'는 보이는 것이 비록 "하나"라고 불릴지라도 그 보임 안에는 보이는 모양이나 색깔에서부터 그 흔들림이나 바람에 스치는 소리 등 수많은 것들이 깃들여 있다.

나무와 같은 사물이 많은 것들이 서로 함께 겹치는 방식으로 그 있음을 이루듯, 사람의 있음 또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있음은 정신과 같은 하나의 밑바탕(실체)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세계 속에 있음'으로서 **여러 짜개**로 이루어진다. '거기에 있음'의 '있음 짜개들'은, 그것들이 모두 함께 그 있음을 얽는다는 점에서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속에-있음'은 그 있음의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이해(Verstehen)와 그 있음에 감정적으로 사로잡혀 대응하는 기분(Befindlichkeit, Stimmung)과 그 둘(이해와 기분)을 마디마디 나누면서 이어가는 말(Rede)로써 짜인다.

하이데거에게서 사람의 있음(거기에 있음/세계 속에 있음)의 바탕은 생각하기나 의식(알고 있기)에 놓이지 않고 나가섬에 놓인다. 나가섬은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이 주장해 온 사람의 밑바탕으로서의 생각하기와 다르다.

- 서양 전통 형이상학에 따른 '사람의 있음'의 밑바탕 = 사람의 본질(무엇임)

생각하기는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갖춘 탁월한, 달리 말해, 다른 생명체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보편적 성질(=본질)**과 같다. 생각하기는 언제나 '무엇에 대한 생각하기'이다. 사람은 이 생각하기를 통해 그것의 대상인 '세계'와 뒤늦게 관계한다. 게다가 생각하기의 빼어난 꼴은 '언어적으로 생각하기' 또는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로 여겨졌고,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는 언어에 제약되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생각하기는 그것이 **밑바탕**인 한 그 위에 놓이는 다른 모든 것과 달라야 한다. 이 다름은

'**지속적 현존성**'에 놓인다. 나는 생각하는 동안에만 있다. '나'와 나의 '생각하기'는 **구분**된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현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속한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생각하기'에 바탕해서만 있을 수 있다.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뿐 아니라 나에게 속한 다른 모든 것들 또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반면 사람은 사물처럼 현실적으로(wirklich) 있다. 현실성은 어떤 것의 '있음의 사실'을 뜻한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다. 현실성은 현재의 시간과 그것에 지정되는 공간에 의한 제약을 뜻한다. 즉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 의해 제약되는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 셈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를 때 사람과 동물 또는 사물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의 무엇임, 즉 '보편적 성질'로서의 본질뿐이다.

- 바탕은 어떤 것의 나타남을 가능케 하는 지평이다.

하이데거에게서 사람의 있음의 바탕은 나가섬이다. 이것은 '거기에-있음'의 바탕으로서 두 짜개로 이루어진다. 이 두 짜개는 서로 뒷받침할 뿐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된다.

> **서양 중세**에서 나가섬은 창조되어 있음을 뜻했다. 창조는 신이 어떤 것이 있기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그리고 형태와 기능 등을 갖고 나타나게 되는 사건을 뜻했다. 나가섬은 신의 생각 밖에 놓이기를 말한다.

> **사르트르** 또한 사람의 있음 바탕을 나가섬(실존)에 둔다. 사르트르의 나가섬은 선택하기와 같다. 사물은 스스로의 삶의 가능성을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있다. 사람의 나가섬은 이런 의미에서 고정된 본질을 거부한다. 사람의 사람됨(본질)은 그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선택해 나갈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고정된 본질은 없다. 사람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이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본질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한 '없는 것(neant)'과 같다. 사람의 삶은 이러한 없음의 바탕 위에서 펼쳐진다. 사람은 '**자유의 형벌**'에 시달리며 살아갈 운명을 타고 났다.

> **하이데거**에 따를 때, 사람은 단순히 '현실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러한 제약에만 철저히 매몰되어 있지도 않다. 사람은 **현실성을 넘어 과거와 미래를 향해 지평적으로 두 팔을 한껏 펼칠 수** 있다. 사람의 있음은 시간의 끝을 향한 끝없는 펼침과도 같다.[1] 이 펼침의 끝이 우주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 시작의 또 다른 시작으로까지 넓혀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우주의 종착점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사람의 있음은 이러한 의미에서

[1] 시간의 지평이 앞서 열리지 않는다면,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있음으로서의 '거기에 있음'이 나가섬에 의해 규정되고, 이 나가섬이 시간의 전체적 지평으로 뻗어나가는 것인 한, 사람은 그가 나가설 수 있는 시간이 앞서 주어진 '한(限)'에서만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 이 점이 『존재와 시간』의 증명 목표이다.

시간과 공간을 끝없이 열려 있음이다. 사람은, 그가 있는 한,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의 처음과 끝(역사)에로 나가선다.

첫째 짜개인 **나감(Ek-)**은 넘어섬으로서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의 뜻하는 바를 깨닫고 있음(존재론적 초월, 존재이해)을 나타낸다. 거기있으미는 '세계 속에 있으미'로서 도구, 사물, 다르미, 자기 자신과 관계할 뿐 아니라, 그것들의 있음의 뜻하는 바와도 관계한다. 이는 나감의 차원이 **있음의 가능성과 관계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가능성, 즉 있을 수 있음 또는 다르게 될 수 있음은 **미래의 차원**을 가리킨다. 물론 미래는 현재와 과거 없이 가능하지 않다. '나감'의 사태가 으뜸으로는 '**미래(未來, Zukunft/올적)에로 향함**'을 뜻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는 있는 모든 것의 '있어-왔음'과 '있음'의 뜻하는 바와도 관계한다는 것이 앞서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짜개인 **섬(-sistenz)**은 거기있으미가 언제나 그때마다 주어진 세계(世界, Welt)와 상황(狀況, Situation)에 놓임을 뜻한다. 이때 세계는 '쓰임 전체성(Bewandtnisganzheit/사용사태 전체성)'과 '의미 부여성(Bedeutsamkeit)'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쓰임 전체성은 도구들의 쓸모와 쓸데로써 엮이는 지시 연관을 뜻하고, 의미 부여성은 거기있으미가 도구의 쓰임새를 스스로의 있을 수 있음에서부터 끌어내는 해석 연관을 뜻한다. 이와 달리 "상황"은 우리말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벌어져 나가는 과정(過程)이나 그 일로써 생긴 결과를 말하지만, 하이데거에게서 상황은 거기있으미가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단을 통해 열어 밝혀지는 '거기'를 뜻한다.

↳ 나가섬(Existenz/실존)은 '**거기'의 열려 있음 속으로 나가 섬(das Aus- und Hinausstehen in die Offenheit des Da)**이다.[2]

↳ 나가섬은 도구와의 관계맺음의 틀인 '**멂-멀리하기(Ent-fernung/거리없앰/가깝게- 하기)**'와 '방향잡기(Ausrichtung)'[3]를 통해 열리는 '거기'로 들어서는 것임과 동시에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이 열어 밝혀지는 '거기'로 들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나가-섬'은 나감의 '거기'와 섬의 '거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갈라진다. 거기있으미가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의 있을 수 있음을 향해 방향을 잡을 때 나가섬은 펼쳐던지기(Entwurf/기획투사) 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감'[4]이 되고, 거꾸로 거기있으미가 자신이 처한

---

[2] 『존재와 시간』, 133 쪽 살핌.

[3] "현존재는 거리를 없애는 '안에-있음'으로서 동시에 또한 방향잡음의 성격을 갖는다. 모든 가깝게 만듦은 앞서 이미,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없애진 것이 가까워지는 그 방면에로 방향을 취하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리와 연관 지어 발견될 수 있다. 둘러보는 배려는 방향잡는 거리없앰이다."(『존재와 시간』, 108)

[4] 이것은 사람의 경우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나감'과 같다.

세계나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가섬은 '내던져짐(Geworfenheit)'이 된다. 또 거기있음미가 저 펼쳐던지기를 '있음 물음'을 스스로 묻고, 그 물음에 대해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의 뜻하는 바'를 밝혀내고, 그 밝혀낸 바를 살아갈 때, 나가섬은 양심적이고 본래적이게 되지만, 사람들의 '있음 이해'를 따라 살아갈 때, 나가섬은 일상적이거나 비본래적이 된다.

'거기에 있음'의 '[거기에로] 나가-섬'에는 서로 다른 두 갈래 흐름이 놓여 있다. 이러한 가름은, 서양 철학의 전통적 갈말로 말하자면, "이성과 감성의 분열"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분열을, 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말로 부른 것처럼, 이성을 우위로 봉합했다. 즉 감성의 권리는 이성에 의해 크게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권리는 이성 자신의 '자기 확실성'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감성을 통해 주어진 것들(Data)은 그것들의 있음의 사실과 그것들의 무엇임이 이성의 범주들(Kategorien)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한에서만 타당하게 된다.

후설은 이성을 감성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는 대신 '의식'에 주어진 한에서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대우했다. 이로써 감성과 이성의 분열은 의식을 통해 극복되는 듯 보인다. 게다가 모든 의식은, 그것이 감성적이든 추상적이든, 언제나 '...에 대한 의식'으로서 '지향성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은 인식 주체와 그 대상 사이의 분열까지 메워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설 현상학은 감성의 본래적 의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는 후설이 감성을 의식에 기초 짓는다는 데서 극명히 드러난다. 감성은 의식에 완전히 포섭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성은 감각 기관에 의존해 있을 뿐 아니라, 감성에 의해 받아들여진 모든 게 의식에 의식되거나 인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감성은 의식과 달리 일면적이다. 눈이 소리를 의식할 수 없듯, 소리에 대한 의식이 귀를 통해 생겨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후설은 결국 감성 저 너머에 놓인 채 의식의 주체와 끊임없이 관계하는 '세계'의 문제를 관념론적으로 해소하고 만다. 즉 지향성의 구조는 끝끝내 '의식의 구조'로 그치고 만다. 이는 후설이 '근대적 분열'을 완치할 없다는 것을 뜻한다.

● '마음-졸이기(Sorge/염려)'

하이데거는 이러한 근대적 찢겨나감(분열)을 '마음-졸이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려 한다.

사람은 인식이나 의식 이전에 본능(本能)의 차원을 갖는다. 이 본능은 주로 몸에 의해 주도된다. 이러한 본능 가운데 동물 또는 생명체로서의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려는 충동(쉘러)과 의지(니체)를 갖는다. 이는 곧 사람이 본질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충동(衝動)은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해 이끌리고 있음을 뜻하고, 의지는 사람이 그 충동을 통해 불러일으켜진 어떤 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충동과 의지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 어떤 것, 즉 결핍된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다. 사람은 본질적

으로 '그 자신에게 아직 없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가섬은 근본적으로 충동과 의지에 의한 나아감에 근거할 뿐 아니라 '나가섬-틀-짜개(실존범주)'에 근거한다. '거기에 있음'의 '나가-섬'은 충동과 의지뿐 아니라 언제나 기분잡혀진 이해와 이해에 기초한 기분과 그 둘을 함께 조건 짓는 말에 의해 가능하다. 나가섬의 현상 전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충동만도 의식만도 이해나 기분 또는 말만도 아니라, 그 모두를 한데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나가섬의 단일적 통일성의 근거를 마음졸이기에서 찾는다.

우리는 '세계 속에 이미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가운데' 그때마다 특정한 상황 속에 놓인 채 '있는 모든 것'의 있음과 그 있을 수 있음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나가섬 때문에 마음을 졸인다**. '거기에 있음'의 꼴로 있는 이, 곧 '거기있으미'가 마음을 졸이는 까닭은 그에게 그 자신의 '있을 수 있음', 즉 미래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미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탕은 미래가 그에게 앞서 다가오기 때문이고, 그가 그 미래를 향해 앞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있을 수'의 앞서 다가옴은 그것의 '앞서 열림'을 뜻하고, '있을 수'에로 앞서 다가감은 그의 깨달음(이해, 선택, 결단)을 뜻한다. 마음졸이기는 나가섬의 통일성이자 전체성이다.

- 마음졸이기의 대표적 현상: 불안의 기분(『존재와 시간』, 제40절)

사람이 마음을 졸이는 까닭은 '어떤 것이 그 자신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는 자(현존재)'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거기에 있음'과 '거기에 있을 수 있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자신의 나가설 수 있음'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음'은 이미 사물들 '곁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다르미들'과 더불어 있다. '거기에 있음'은 언제나 이미 '곁에 있음'이자 '더불어 있음'이다. 이러한 있음들이 '거기에 있으미'에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그 있음들이 '자기 자신'의 '있을 수 있음'에게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있음'의 '있을 수 있음' 때문에 가능한 셈이다.

하이데거는 '거기에 있으미 자신'이 그 자신의 '있을 수 있음'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들을 펼쳐 던지는 사태를 일러 "자기를-앞질러-있음(das Sich-vorweg-sein des Daseins)"[5]이라 부른다. 자신의 가능성들은 '자기 자신'을 앞질러 있다. 이러한 '앞지름'은 이미 '그때마다 앞서 열어 밝혀진 세계 속에서' 일어난다. 즉 그의 앞지름은 '끝없는 달려나감'이 아니라, 이미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음'에 의해 제약된 초월함이다. '자기를 앞질러 있음'은, 그것이 '세계 속에 있음'의 단일성에 의해 구조 지워져 있어야 하는 한, 도구들 내지 사물들의 전체로서의 세계 '곁에 있음'을 포함해야 한다.

---

[5] 『존재와 시간』, 192 쪽.

'세계 속에 있음'은 '마음졸이며 있음'이다. 이러한 마음졸이기는 그 양식에 따라 변양된다. "손안의 것의 곁에 있음"은 배려(配慮/Besorge)의 대상이다. 배려는 자신의 곁에 있는 손안의 도구들을 특정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의 마음졸이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배려는 그때마다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특정의 도구로써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구의 사용에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한다. "곁에 있음"은 "**마음쏟고 있음**"이다. 또 다르미(타인)들과의 "더불어 있음"은 심려(心慮/Fürsorge)의 대상이다. 심려는 다른 사람의 "있을 수 있음"에 대해 대신 마음졸이거나 더불어 마음졸이는 것을 말한다. 심려는 다른 사람의 결단을 대신 떠맡거나, 아니면 그를 결단에로 촉구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실존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있음"은 "**마음쓰고 있음**"이다.

'마음졸이기(염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자신의 존재가능성 때문에 도구들의 곁에 있음에 마음을 쏟고, 다른 사람들과의 더불어 있음에 마음을 쓰는 현존재의 근원적 행동관계이다. 도구의 사용 목적에 마음을 쏟으면서 세계 "곁에 있음"과, 다르미의 실존 가능성에 마음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음", 그리고 그 자신의 있을 수 있음의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자기 자신으로 있음" 등은 '거기에 있음'의 방식들이다. 이 "있음들"은 '거기에 있음'이 "세계 속에 있음"으로서 이해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은 "곁에 있음"과 "더불어 있음" 그리고 "자신으로 있음"은 "**속에-있음**"에 근거하고, 이는 다시금 마음쏟음(배려)과 마음씀(심려)이 마음졸이기(염려)에 근거한다.

하이데거는 '거기에 있는 자'의 있음의 의미를 "마음졸이기"로서 제시한 뒤 그에 대한 현상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기로 한다.

> 염려(Cura)가 강(Fluß)을 건너갈 때, 그녀는 점토(진흙/Ton)을 발견했다. 생각에 잠겨 그녀는 한 덩어리를 떼어내어 빚기(formen) 시작했다. 빚어낸 것(was sie geschaffen)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유피테르(주피터/Jupiter)가 다가왔다. 염려는 빚어낸 점토 덩어리에 혼(Geist/spiritum)을 불어 넣어달라고 유피테르에게 간청했다. 유피테르는 쾌히 승낙했다. 염려가 자신이 빚은 형상(ihrem Gebilde)에 자기 이름(ihren Namen)을 붙이려고 하자, 유피테르가 이를 금하며 자기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름을 가지고 염려와 유피테르가 다투고 있을 때 텔루스(Tellus/땅)도 나서서 그 형상에는 자기의 몸 일부가 제공되었으니 자신의 이름(ihr Name)이 붙여지기를 요구했다. 이들 다투던 이들은 사투르누스(Saturnus/시간)를 판관으로 모셨다. 사투르누스는 다음과 같이 얼핏보기에 정당한 결정을 내려 주었다. "그대, 유피테르, 그대는 혼을 주었으니 그[빚어진 것/das Gebilde)가 죽을 때 혼을 받고, 그대 텔루스는 육체(Körper)를 선물했으니 육체를 받아가라. 하지만 염려는 이 존재(Wesen)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gebildet), 이것이 살아 있는 동안 그것을 그대의 것으로 삼을지니라(besitzen). 그러나 이름 때문에 싸움이 생겼는 바, 그것이 후무스(humus/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호모(homo/인간)'라고 부를지니라.[6]

여기서 '빚어진 것'의 있음의 근원은 염려(마음졸이기)에 있다. 즉 쿠라가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만듦의 끝마침은 어떤 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시작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어져 있는 것'은 쿠라의 소유물이 되고, 그것이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시간)", 그

---

[6] 『존재와 시간』, 197-198

것은 자신의 근원인 쿠라에 의해 철저히 지배된다. 그것의 있음 즉 "세계 속에 있음"은 쿠라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 형상물로서의 사람은 그가 세계 속에 있는 동안 마음졸이기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 만들어져 있는 것의 이름은 그것의 이름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만들어진 재료를 통해서 주어진다.

거기 세계 속에 있는 자의 있음의 의미는 '마음졸이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로써 그는 세계 속에서 만나는 손안의 도구들에 대해 마음을 쏟고,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마음쏟음(배려)과 마음씀(심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있을 수 있음의 가능성에 대한 마음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마음쏟음이 "세계(도구들 전체) 곁에 있음"에 상관되고, 마음씀이 "더불어 있음"에 상관되는 한, 마음졸이기는 세계 안에서 만나지는 존재자의 '곁에 있음'으로서 '자기를 앞질러(가능성을 펼쳐 던지며)' '이미 그때마다의 세계 속에 있음'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졸이기"의 형식적 실존론적 전체성(구조 전체): "Das Sein des Daseins besagt: Sich-vorweg-schon-sein-in-(der-Welt) als Sein-bei (innerweltlich begegnendem Seienden"[7]

'마음-졸이기'는 '거기에 있음'의 있음의 뜻하는 바로서 '세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의 '곁에 있음'과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앞질러 있음'을 통일적으로 가능케 하는 바탕이다.

[7] 우리말로 옮기면, "(세계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 '곁에-있음'으로서 '자기를-앞질러'-'이미-(세계-속에)-있음'"